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서

이건영

이순신 장군과의 접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는 나이였다, 여섯 살은. 하마터면 그저 위대한 역사인물 중 하나만으로 남아버렸을 수도 있는 이순신 장군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그와 나의 연결고리를 찾은 후였다. 우리 어머니는 이순신 장군과 본관이 같은 덕수 이씨다. 위대한 역사 속 인물이 그저 동화 책 속의 그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이순신 장군은 나에게 와서 특별한 의미로 남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도 내가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하는 역사인물로 꼽게 된 것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순신 장군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다름아닌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어린이용 만화 책과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속에서였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배워야한다’는 교육 이념 아래 어렸을 적부터 나의 부모님은 침대 머리맡이나 책상 위에 역사 관련 도서를 잔뜩 올려두시곤 했다. 또한 아버지께서 즐겨보던 드라마도 <불멸의 이순신>일 정도로 나는 이순신 장군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책과 드라마를 포함해 다양한 매체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며 나는 시간이 지나 깊은 향기를 풍기는 역사와 함께 자라났다.

그러나 사천해전이 있었던 경남 사천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어디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영혼을 직접 정식으로 대면할 기회가 없었다. 언제나 스크린이나 책장 안에서만 그를 만났을 뿐, 그의 숭고한 민족 정신이 피부로 생생히 느껴지는 유적지에 오랜 시간을 들여 다녀올 기회가 없었다. 물론 전남 여수의 이순신대교, 한산도 대첩이 열렸던 통영 등 관련 유적지에 들렀던 적은 많았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잠깐 들린 것이 전부였던 셈이다. 그의 숭고한 열과 정신을 직접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했으면서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로 이순신 장군을 꼽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진 나는 굳은 결심 끝에 나의 고향인 사천의 선진리성을 찾았다.

선진리성과 그 앞바다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거북선을 띄워 왜적을 물리쳤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깊은 곳이다. 그와 동시에 사천, 그리고 벚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 사천 주민들이 봄마다 즐겨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문화관광지로 활성화되면 좋을텐데, 안타깝게도 선진리성은 벚꽃을 구경하는 선진공원일 뿐이라고 잘못 알려져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 역시 벚꽃 구경으로 온 적은 있어도 이렇게 선진리성에 숨겨진 의미가 깊은 줄은 모른 채 살아왔으니 말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유흥준 씨의 말처럼,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걸어보는 선진리성은 여태껏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느낌이었다. 한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물리치고 조국의 위상을 다시 찾아야하는 국가적 과제에 부딪혀 많은

고난을 겪었을 이순신 장군의 삶과 그 속에서의 애환, 그리고 왜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겠다는 일념 아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장으로 나섰을 그의 용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에는 과장이 단 한 톨도 담겨있지 않다. 본디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을 타고난 나이지만, 정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제대로 알고 이순신 장군이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뇌를 거쳤을지 이해하며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나의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한 가지 당부를 남기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숭한 역사교육을 거치고, 또한 <명량> 등의 흥행 영화 등을 보며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그에 대해 아는 것을 자신있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참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직접 그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아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 아래 그가 겪었을 일과 그의 업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피부로 와닿아오는 숙연한 마음을 느껴보는 것은 그저 책장을 넘기며 그의 업적에 대해 감탄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일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충무공의 역사가 담긴 유적지를 다녀오며, 사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이충무공이 지켜낸 조국과 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겪으며 살아올 수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